

VOL. 08

2022 | 가을

# 충북학누리



옥천군 군북면 이지당

# 충북학누리

Vol.08 | 2022 가을

## CONTENTS

- |    |   |    |    |   |    |
|----|---|----|----|---|----|
| 01 | <b>여는글</b><br>인문학적 정책과 예술의 힘<br>유영선                                   | 3  | 05 | <b>충북의 옛이야기</b><br>모양도 특성도 다양한 충북의 동제장<br>이상희 | 22 |
| 02 | <b>시로 만나는 충북의 문화공간</b><br>높은 산을 우러러보며 큰길을 걸어간다,<br>옥천 이지당(二止堂)<br>김용남 | 5  | 06 | <b>충북 문화예술 여행</b><br>충북의 영화인<br>윤정용           | 27 |
| 03 | <b>오늘을 비추는 역사 속 인물</b><br>신규식, 그의 투쟁 그의 문학<br>조혁연                     | 12 | 07 | <b>충북학연구소 소식</b>                              | 34 |
| 04 | <b>Discovery ChungBuk</b><br>청주시민의 최초 극장, 액좌 2<br>임기현                 | 19 |    |   |    |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정 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8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2. 10. 25.

# 인문학적 정책과 예술의 힘

유영선(동양일보 상임이사)

2022년 8월 27일, 서울에서 평창 둔내역까지 KTX는 모든 시간이 매진이었다. 주최 측은 대중교통 이용을 공지했지만, 교통이 불편한 산골이라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상대로 계촌마을은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공연시작 시간은 오후 7시였지만 좋은 자리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오후 5시부터 입장을 위해 서기 시작한 줄이 마을 안길을 메웠다. 공연의 메인은 '2022 번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인 '임윤찬'의 공연. 입장객 5500명에 끼어서 임윤찬의 피아노 공연을 지켜보았다.

음향이 좋은 실내공연장이 아닌, 나방들이 날아다니고 소음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방이 땀 뚫린 야외 가설무대에서 임윤찬은 윌슨 응(서울시향 수석 부지휘자)이 지휘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했다. 화려하고 섬세한 곡이었다.

해발 700m의 서늘한 강원도 산골의 밤. 관객들은 흠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앉거나 간의자에 앉는 등 불편한 자리였지만,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미세한 움직임조차 감지될 정도로 임윤찬의 연주에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클래식 감상 도중 실수하기 쉬운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도 단 한사람의 박수도 들리지 않아 연주의 집중력이 이어졌다.

참으로 놀라웠다. 우리나라 클래식 감상 수준이 이 정도인가. 물론 다음날 저녁 이어진 유키구라모토의 피아노 공연은 관객수도 줄고 감상분위기가 좀더 자유로웠지만, 클래식을 애호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8월 27일과 28일 이틀간 계촌마을에서는 5개의 콘서트가 펼쳐졌고 약 1만여 명이 다녀갔다. 이들은 모두 자발적인 관객들이다. 스스로 찾아와서 계촌마을과 인근에서 숙박을 하고, 먹거리장터에서 음식을 사먹고, 마을에서 로컬푸드를 사고, 음악 속에서 휴가를 즐겼다.

‘예술의 힘’이 이런 것인가, 신선한 충격이었다.

올해로 8회차에 접어든 이 ‘산골마을 클래식 축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최·주관해온 ‘예술마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이들이 줄어서 계촌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말을 듣고 악기 지원을 시작하여, 계촌초등학교와 계촌중학교에 재학하는 전교생이 오케스트라단을 꾸린 일은 유명하다. 아이들은 매년 여름 마을에서 공연을 연다. 그리고 이 기간에 세계 유명 연주자들이 이 마을을 찾아 무료 공연을 한다. 음악연주로 산촌마을이 클래식마을로 거듭난 것이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계촌 마을 사람들은 계촌 천(川)을 1급수로 만들어 물놀이터로 즐길 수 있게 했다. 래프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강변에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토종 복숭아, 개살구, 진달래 등을 심었다. 농촌 체험마을을 만들어 감자나 메밀요리 찰옥수수 올챙이국수 등 전통 음식을 되살렸고, 전통놀이도 재연했다. 이들은 계촌마을이 동요 ‘고향의 봄’에 나오는 마을의 모델이 되길 원한다.

‘예술마을’을 만들고자 한 정책이 ‘예술의 힘’으로 되살아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예술마을 프로젝트’는 지역 마을이 지닌 문화적 자산과 장르별 예술을 연계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계촌마을 외에도 한국 예술에 헌신한 국악계 명인들의 일대기를 재조명하는 ‘명인시리즈’로 예술의 가치를 사회로 확산하는 일도 한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워 마침내 꽃을 피우는 것이다. 꽃은 향기를 뿜는다. 향기는 곧 예술의 힘, 바로 향유하는 이들의 것이 된다.

현대는 미학의 시대이다. 모든 것에 예술이 스며들고 있다.

예술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사물들, 모든 활동과 사색, 사고, 심지어는 음식을 만들고 먹고 소비하는 일조차 아름다움이 깃든 예술적인 경험에 지배되고 있다.

또한 현대는 인공지능시대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VR·AR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만든 인공지능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시대는 인간이 창조하는 본성과,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바야흐로 미학과 인공지능 접목의 시대가 왔다. 이 시대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인간의 내재적 가치, 문화론적 창조성, 고전과 역사, 인권과 공동체 연대감 등에 관한 융합 담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예술적 상상’이 필요하다.

이제 충북도 충북인의 정신이 녹아있는 인문학적인 정책을 개발, 예술의 힘을 키워야 할 때다. 예술의 힘은 바로 이 시대 최고의 힘이기 때문이다.

## 02 시로 만나는 충북의 문화공간

# 높은 산을 우러러보며 큰길을 걸어간다, 옥천 이지당(二止堂)

김용남(충북대학교 강사)

### 조헌이 노닐며 감상하던 곳

금강 상류의 지류인 서화천을 굽어보는 산비탈에 자리한 옥천 이지당(二止堂)은 조선시대에 건립된 서당이다. 강당과 누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박하고 단아한 이지당은, 조선후기 정형화한 서당 건축의 형식을 뛰어넘어 역사·예술·학술·건축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아 최근 보물로 지정되었다. 사계절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일찍이 조헌(趙憲, 1544~1592)이 한가롭게 노닐며 감상하던 곳으로, 지금도 이지당으로 가는 길 옆 바위에는 ‘이지당(二止堂)’ 세자와 그 아래에 ‘중봉선생유상지소(重峰先生遊賞之所)’ 여덟 자가 있다. 이 바위 글씨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쓴 것을 1687년에 새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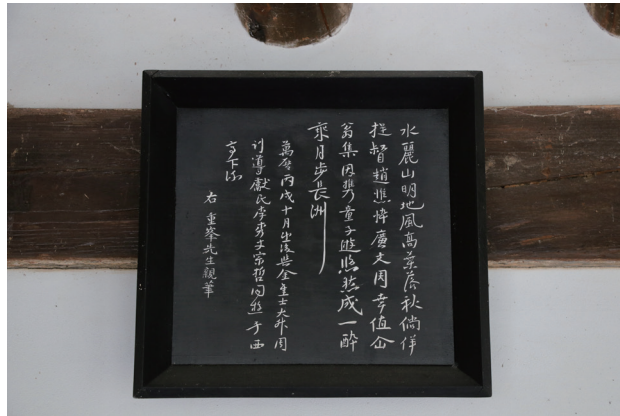


▲ 이지당 바위글씨

1584년 겨울부터 옥천 안읍(安邑) 울치산(栗峙山)에 머물던 조헌은 공주목(公州牧) 교수로 있던 1586년 가을에 이곳에 들러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산수가 아름다운 이곳은  
바람에 잎이 지는 가을이라.  
거닐며 노닐던 조 제독이  
우연히 주 광문을 만났네.  
다행히 선옹들 모여  
동자들을 이끌고 노니는 곳.  
느긋하게 한번 취하여  
달빛 타고 긴 물가를 거니네.

水麗山明地  
風高葉落秋  
徜徉提督趙  
邂逅廣文周  
幸值仙翁集  
因携童子遊  
悠然成一醉  
乘月步長洲



▲ 이지당에 걸려 있는 조헌의 시판

제목은 <이종철과 냇가를 거닐다 마침 술을 들고 찾아온 김대승과 주헌민을 만나 술에 취해 뜻을 말하다(與李生宗喆散步川上, 適值金生員大升·周賢仲獻民携酒見訪, 乘醉言志)>이다. 운자는 추(秋), 주(周), 유(遊), 주(洲)이다. 조헌은 이지당이 자리한 이곳의 풍광을 ‘수려산명(水麗山明)’이라 하였다. 그만큼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곳이기에 자주 찾게 되었으리라. 당시 이곳에는 각신동(覺新洞)이라는 마을 이름을 딴 각신서당(覺新書堂)이 있었다. 물론 규모나 외양이 지금 이지당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조헌은 때때로 이곳을 찾아 한가로이 경치를 감상하는가 하면 평소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교유하며 학문을 닦았다.

**이지당,  
김만균이 건립하고  
송시열이 명명하다**

조헌 사후 80여 년에 그 옛날 각신서당이 있던 자리는 쓸쓸하기만 하였다. 그 맑고 또렷하던 아이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당시 승정원 좌부승지였던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증손이자 송시열의 문인 김만균(金萬均, 1631~1675)이 공무의 여가에 옥천에 와서 각신마을 선비 금유(琴諭)·금성(琴愷)·조징(趙澄)과 함께 중봉 선생의 발자취가 서린 곳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냥 방치하여 세월에 묻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과 이미 지방학교가 있던 곳에 집을 세워 수재들을 모아 가르친다면, 현인을 사모하는 뜻(慕賢之意)과 선비를 양성하는 방법[造士之道]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서당을 지었다. 1674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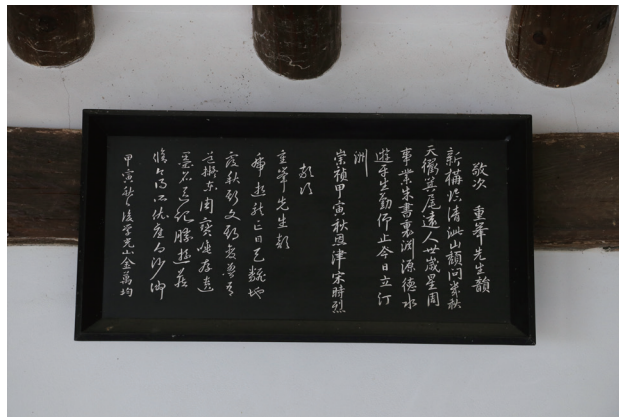


▲ 옥천 이지당

범이 떠나고 용이 사라지던 날은  
 천지가 뒤집히고 무너지던 때라네.  
 사문은 노나라가 되기를 기약하며  
 우리 도를 동주에 비하였네.  
 시편이 유묵으로 남아 있어  
 명승에서의 좋은 놀이 기록하였구나.  
 학문을 닦던 곳 지금 와보니  
 흰 모래 물가만 예전 그대로라네.

虎逝龍亡日  
 天翻地覆秋  
 斯文期變魯  
 吾道擬東周  
 寶唾存遺墨  
 名區記勝遊  
 藏修今得所  
 依舊白沙洲

김만균의 작품이다. ‘호서용망(虎逝龍亡)’은 조헌의 죽음을 뜻한다. ‘사문은 노나라가 되기를 기약하며 우리 도를 동주(東周)에 비하였다’는 것은, 조헌 사후에도 도가 이어져 주공(周公)이 다스린 노나라처럼 풍속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동쪽에서 주나라의 문물제도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한 공자의 ‘동주(東周) 만들기’의 뜻을 잊지 않고, 이곳 옥천의 각신마을에 유학의 도를 보존하고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 이지당에 걸려 있는 김만균(오른쪽)과 송시열(왼쪽) 시판

당명(堂名)은 송시열에게 부탁하였다. 송시열은 『시경(詩經)』의 “높은 산을 우러러보며 큰 길을 걸어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 라는 구에서 ‘양지(仰止)’와 ‘행지(行止)’, 이 두 가지 ‘지(止)’의 뜻을 취하여 ‘이지당(二止堂)’이라 명명(命名)하였다. 높은 산[高山]은 고상한 덕행을 가리키고 큰길[景行]은 정대하고 광명한 행위를 말한다. 인(仁)을 좋아함은, 인(仁)의 그릇을, 무겁고 그 길이 멀기 때문에 ‘고산경행(高山景行)’과 같다. 그러하기에 오직 우러러볼 뿐만 아니라 행하려고 해서 반드시 여기에 그쳐서 옮기지 않는 뜻이 있어야 한다. 도(道)를 향해 가서 힘이 소진한 뒤에야 그치니, 늙는 것도 잊고 여생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매일 부지런히 노력하다가 죽은 뒤에야 그치는 것이다. 이것이 ‘지(止)’의 의미이다.

송시열은 조헌의 절의와 도덕이 마치 고산(高山)·경행(景行)과도 같아 가히 우러르고 따를 자로 조 선생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고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문인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청주에서 왜적을 격파하고 마침내 금산에서 의병 700여 명과 함께 전사한 그의 절의는 모두가 공경하여 우러러 사모할 만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헌은 김장생과 함께 이이(李珥)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니, 비록 덕에 나아간 데는 차이가 있으나 그 연원과 학문의 방법[門

路]이 바른 것은 영원히 의혹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면이 바로 각신마을 선비들이 우러르고 따르려는 까닭이니, 어진 이를 잊지 않으려는 오늘날의 마음을 대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이지당(二止堂)'이라는 당명을 지어준 뜻을 말하였다.



▲ 이지당 현판

조헌의 문집 간행을 주관하기도 했던 송시열은 1674년 이지당이 건립되자 당명을 써주며 <이지당기(二止堂記)>를 짓고 아울러 시도 한 수 지어 김만균에게 보냈다.

새로 지은 집 맑은 물가에 임했으니 선생 가신 지 몇 해인지 묻네. 하늘 거리에 기미성이 멀고 인간 세상에는 세월이 흘렀구나. 사업은 주자의 글 속에 있고 연원은 율곡에게 받았어라. 맑은 술잔 올리고자 마름을 물가에서 캐었노라.	新構臨清泚 山顏問幾秋 天衢箕尾遠 人世歲星周 事業朱書裏 淵源德水遊 欲陳明酌薦 蘋藻採芳洲
--	--

이 시의 제목은 <삼가 중봉 선생의 이지당 시에 차운하여 김 사군 정평에게 보내다(敬次重峯先生二止堂韻, 酬金使君正平 萬均)>이다. 끝구는 다른 책에는 “평생에 사모함 간절했으니 오늘도 물가에 섰노라.[平生勤仰止 今日立汀洲]”로 되어 있다. ‘사업은 주자의 글 속에 있고 연원은 율곡에게 받았다’고 하여 주자를 정신적 스승으로 삼고 율곡이이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한 조헌의 학문적 연원을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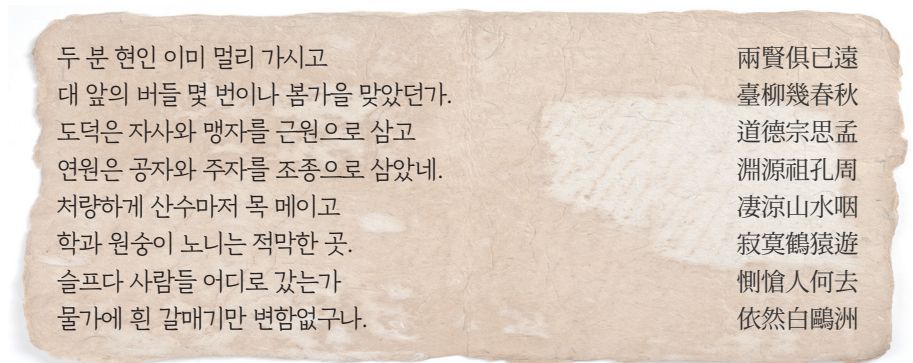
**금봉의가 묻고  
송시열이 답하다**

김만균이 이지당을 짓기 전 답사에 동행했던 금유(琴楡, 1614~1677)·금성(琴惺, 1619~1681) 형제의 자제들은 모두 이지당에서 공부했는데, 특히 금유의 아들 금도명(琴道鳴, 1639~1697)은 송시열의 제자로 『화양연원록(華陽淵源錄)』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금도명의 아들 수경재(水鏡齋) 금봉의(琴鳳儀, 1668~1697) 또한 선조들이 대대로 각신마을에 살면서 이지당 창건에 깊이 관여하며 그곳에서 공부하였기에 그 또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지당에서 공부하였다. 그런 그가 송시열을 처음 만난 것은 1680년 종조(從祖) 금성의 집에서였다. 그때 그의 나이 열세 살이었다.



금봉의가 본격적으로 송시열의 제자가 되어 배움을 청한 것은 18세 때인데, 송시열은 그가 성현의 학문에 뜻이 있음을 알고 더욱 귀하게 여겼다. 1687년 20세의 청년 금봉의는 이지당에서 스승 송시열에게 도에 들어가는[入道] 요체를 물었다. 그러자 송시열은, “사계 선생은 사람을 가르치되 반드시 『소학(小學)』을 우선으로 하셨다.” 라고 하였다. 이는 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로 이어진 자신의 도통(道統)을 확인하는 한편 금봉의에게 이러한 도통을 전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어 처신하는[行己] 요체를 묻자, ‘경(敬)’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고, 그 항목을 물으니, “쉽게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으니, 잡된 말을 하지 말고[無雜言], 잡된 행동을 하지 말고[無雜行], 잡된 생각을 하지 마라[無雜思]” 라고 하였다. 도에 들어가려면 몸가짐이 ‘경(敬)’을 벗어나서는 안 되니, 구체적으로는 평소 잡언(雜言)·잡행(雜行)·잡사(雜思)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1688년 가을, 송시열은 금봉의에게 ‘명성양진(明誠兩進) 경의해립(敬義偕立)’ 여덟 글자를 써주었다. ‘명과 성에 모두 정진하여 경과 의를 함께 세운다’는 것이다. 명(明)은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여 무엇이 선(善)인지 아는 것이고, 성(誠)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 인성을 수양하는 기본 명제이다. 또한 군자는 경(敬)으로 마음을 끈게 하고 의(義)로 일을 바르게 하니, ‘경’과 ‘의’가 확립되면 덕이 외롭지 않다고 하였다. 스승이 제자에게 권면하는 뜻이 이와 같았다.



<이지당. 삼가 중봉·우암 두 선생의 시에 차운하다(二止堂, 敬次重峯尤菴兩先生韻)>라는 제목의 이 시는 송시열 사후에 지은 것이다. 두 현인이 떠나고 없는 이지당의 쓸쓸하고 적막한 풍광을 그렸다. 금봉의는 이지당 주변의 산이 밝고 물이 고음을 사랑하여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늘 그곳에서 유식(遊息)하였다. 더구나 이지당은 스승 송시열이 제자들을 모아 강론한 곳이 아닌가. 이처럼 스승과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곳이기엔 스승이 떠나고 없는 적막한 이지당에서 새삼 스승에 대한 깊은 그리움에 잠긴 것이다.

**이지당,  
호서사림의  
강학처가 되다**

조헌과 송시열이 산수를 즐기며 도를 강론했던 이지당은 그 자체로 기호학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기호학맥에서 가장 큰 줄기는 율곡학파인데, 조헌이 이이의 문인이고 그와 동문이자 율곡의 적통을 이은 제자인 김장생의 증손 김만균이 이지당을 건립하였으며, 김장생의 적전(嫡傳)인 송시열이 당명을 짓고 이곳에서 강학하였다. 이로써 옥천 이지당은 이이-김장생-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유학의 도통을 전수하는 현장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

송시열 사후에도 이곳에서 공부했던 수많은 제자들은 스승의 유훈을 받들고 유업을 계승하였다. 한편 스승이 강론했던 현장을 방문하는 호서사림(湖西士林)들의 발걸음 또한 이어졌다.

명승에 일찍이 두 분 대로가 계셔  
정학으로 천추토록 함께 하시네.  
벼랑은 오래되어도 친필은 남았으니  
텅 빈 산속에서 몇 해나 흘렀는가.  
안타까워라 이내 몸 뒤늦게 태어나  
이곳에서 함께 공유하지 못함이어.  
학문의 참된 근원 거슬러 올라가고자  
저물녘 물가에 배회하며 섰노라.

名區曾二老  
正學共千秋  
崖古字猶在  
山空歲幾周  
吾生嗟已後  
此地未同遊  
欲泝眞源去  
徘徊立晚洲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작품이다. 송시열의 학맥은 크게 권상하를 중심으로 하는 호파(湖派) 중심의 학맥과 김창협을 중심으로 하는 낙파(洛派) 중심의 학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창협의 손자이자 이재의 문인인 김원행은 자연 낙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활동하는데, 1771년 옥천 이지당을 방문하고 이 시를 지었다. 바위에 새겨진 스승의 친필을 찾아보며 자신의 학문적 연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선현의 자취 머무는 이곳에  
경물은 몇 번의 가을이 지났는가.  
고목은 시냇가에 쓰러져 있고  
가파른 바위로 좁은 길 이어졌네.  
학문에 전념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한가로이 지내며 놀던 일 생각한다.  
회운하며 부질없이 기다리노라니  
가벼운 연기 저녁 물가에 이네.

昔賢留躅地  
雲物幾徂秋  
古木當溪偃  
巉巖挾路周  
藏修勤後學  
薻軸想前遊  
廣韻空延佇  
輕烟已夕洲

이 작품은 송준길(宋浚吉)의 후손으로 성리학과 예학에 조예가 깊었던 송내희(宋來熙, 1791~1867)가 1840년에 지은 것이다. 선현의 자취가 머무는 이지당을 찾아 소회를 풀어내었다. 경련의 '장수(藏修)'는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을 말하며, '과축(薻軸)'은 『시경』 「고반(考槃)」의 '석인지과(碩人之薻)'의 '과(薻)'와 '석인지축(碩人之軸)'의 '축(軸)'을 합한 말로 한가로이 지내는 모양이다. 현자가 세상을 피해 은거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군자가 학문을 할 때 공부에 힘쓰기도 하고 때로는 유유자적하며 쉬기도 하는데, 이곳 이지당이 선현의 장수처(藏修處)요 유식처(遊息處)였음을 말한 것이다.

오래된 당에 유풍이 남아 있고  
바위의 꽃은 몇 해나 지났는가.  
윤상은 조정을 유지하였고  
도맥은 정자와 주자로 거슬러 오르네.  
세상에 늦게 나온 나는  
계산에서의 옛일에 감회가 일어라.  
두 분의 자취 길이 사모하여  
달빛 타고 빈 물가를 내려가네.

堂古遺風在  
巖花閱幾秋  
倫常扶廟社  
道脈溯程周  
宇宙生吾晚  
溪山感舊遊  
長懷二老躅  
乘月下空洲

송시열의 9대손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작품이다. 그는 자주 이지당에서 회강(會講)하였다. 두 분의 윤리와 도덕이 조정을 유지하였고, 도맥(道脈)은 정자(程子)와 주자(周子)에 닿아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늦게 나온 까닭에 평소 흠앙(欽仰)하는 두 분과 종유(從遊)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다. 한편 송병선은 금봉의의 문집 『수경재유고(水鏡齋遺稿)』의 서문을 지은 바 있고, <이지당계안(二止堂契案)>의 서문을 쓰기도 하는 등 그 누구보다도 이지당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송시열 사후 그의 유업을 계승한 문인과 후손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호서사림의 강학처(講學處)로 기능하였던 이지당에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선현의 자취와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올 가을 옥천 이지당에 가볼 일이다. 멀리 이지당을 감싸 안은 산을 바라보며 물가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볼 일이다.



▲ 이지당 전경

## 신규식, 그의 투쟁 그의 문학

조혁연 (중부매일 사사편찬위원장)



▲ 예관 신규식

신규식(申圭植, 1880~1922)은 한말의 격변기에 태어나 일제 강점기라는 절박한 현실을 겪었다. 그는 43세에 순국할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되찾고자 했던 근대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다. 그의 독립운동은 동생 신건식, 조카 신형호와 신순호, 사위 민필호, 외손녀 민영주의 독립운동까지 영향을 미쳤다. 부친 신용우는 의병활동을 하였다.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유작으로는 『한국혼』과 시집 「아목루(兒目淚)」 등이 있다. 그는 독립운동가와 교육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시와 한글시도 잘 지었던 문학인이기도 했다. 그는 독립 의지를 문학으로 표현했고, 문학을 통해 항일투쟁 의지를 더욱 다졌다.

### 국립 한어학교에 입학하다

신규식은 1880년 1월 충청도 문의군 동면 계산리(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2길 4-46)에서 아버지 신용우와 어머니 전주 최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신규식을 낳고 아명을 석호(石虎)라고 지었다.

조선 영조대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났고, 청주 고령신씨(일명 산동신씨) 신천영(申天永)도 난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숨졌다. 이인좌의 난 이후 청주 고령신씨는 중앙 정통관료를 진출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전락한 경향은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채호, 신규식 등 청주 산동신씨들이 기득권층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거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유로 보기도 한다.

1896년 신규식은 한양조씨 규수 조정완과 결혼하고 3개월 후 신학문 수학을 위해 상경하였다.

그는 당시는 이미 과거가 없어진 때로 중국어를 배우는 국립 한어(漢語)학교에 입학하고, 독립협회에서는 이승훈(李昇薰)과 함께 재무과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한어학교 수학 중에 중심과목 중국어 독본·작문·회화 외에 역사·지리·산술 등 신학문을 공부하였다. 그가 이때 연마한 중국어 실력은 훗날 중국 신해혁명에 가담하고 쑨원[孫文]과 친분을 쌓는데 큰 자양분이 된다.

그는 유년시절 청주 산동에서 한학을 깊게 배운 바 있고, 여기에 중국어 장벽까지 훌쩍 뛰어넘으면서 상해 임시정부 내 그 어떤 망명 인사보다 중국권력 중심부에 깊숙이 진입할 수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필담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소통했던 것에 비해 한학과 중국어에 모두 능한 신규식의 어학실력은 독보적 재능이자 능력이었다. 또한 당시 한중 연대의 합작에 있어서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었다.

1900년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립 한어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한어학교 재학 중 독립협회 활동할 당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의 사설에서 부국강병론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교육을 중시하였다. 1901년 신규식은 고향 인차리에 덕남사숙(德南私塾)을 직접 설립하였다.

덕남사숙은 신씨 종가를 빌어 학동 80여명을 모집하고 백여 명의 주민과 함께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이이화의 『신규식전』에 의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또한 보배입니다.(…중략…)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武를 업신여긴 것이요, 다른 하나는 교육에 등한하였기 때문입니다.(중략) 이순신 장군의 철갑 거북선을 한낱 녹슨 쇠붙이로 만든 후손이 나라 망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요, 또 이 원인은 교육이 철저히 못한 탓입니다.(…중략…) 이 나라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어린이 교육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규식(1880~1922) 연보		
연도	나이	내용
1880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에서 신용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남
1896	16	한양 조씨 조정완과 결혼하고 3개월 후 신학문의 수학을 위해 상경
1897	17	관립한어학교에 입학하고 독립협회에서 이승훈과 재무과장으로 활동
1900	21	육군무관 학교 입학
1901	22	인차리에 덕남사숙 직접 설립
1902	23	육군보병 참위(9품)로 임관
1903	24	진위대 졸업증서 받음
1905	26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음독자살 기도. 민중정공 애도시 발표
1906	27	육군 부위로 진급하고 한어야학교를 설립
1907	28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고 군대해산령으로 순국 기도
1908	29	영천학계 설립하고 기호흥학회 가입
1909	30	월간잡지 『공업계』 창간하고 대중교에 가입
1910	31	한일병합 소식듣고 음독 자살 기도

1911	32	중국 상해로 망명하고 이름을 신정(申淸)으로 개명
1912	33	박은식, 신채호, 신건식 등과 동제사 조직하고 『한국혼』 집필 시작
1913	34	천치메이(陳其美)와 함께 신해혁명에 가담
1914	35	외국인으로서 유일하게 南社에 가입
1915	36	1차 세계대전을 호기로 보고 신한혁명당을 조직하고 잡지 『震壇』 발행
1916	37	나철이 순교하자 추도만장을 쓰고 고려사터를 발견하고 복원
1917	38	상해에서 「대동단결선언」을 주도적으로 발표
1918	39	민족자결주의 발표되자 파리평화회의에 전문 발송하고 신한청년단 조직
1919	40	무독립선언에 참여하고 임시정부 법무총장에 임명됨
1920	41	『신한청년』 창간하고 쑨원(孫文)에게 글을 보냄.
1921	42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리를 맡고 광동 호법정부를 방문해 쑨원 접견
1922	43	임시정부 분열을 비판하여 병석에 눕게 되고 25일 단식 끝에 순국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1993		8월 10일 국립현충원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8역에 안장

덕남사숙에서 가르치는 교과는 산술·측량·한문·역사 등 10여 과목이었으며, 신채호를 비롯한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담당시킴으로써 재래서당이 아닌 근대식 학교의 면모를 갖춘 사숙이었다. 그 후 신규식은 자금을 출연하고 신씨 문중 및 인근 주민의 찬조를 얻어 일 년 후 새 교사를 신축·이전하였다. 새로운 교사는 문의군 동면의 앞 글자를 따서 문동학교(文東學校)라 개칭하였다. 그는 군무에 바쁜 중에도 고향에 내려와 직접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을사조약 체결 직전에는 이곳에 내려와 손수 작사·작곡한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아 대한민국 만세  
부강기업은 국민을 교육함 존재함일세.  
우리는 덕을 닦고 길을 바로어  
문명의 선도자가 되어 봅시다.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나라의 기초는 우리 학도님.  
충군신 애국성을 잊지 마시오.

활발히 경주하여 전진함에  
허다사업을 감당할려이면  
신체의 건강함이 청백이로다.  
천지도 명량하고 평원광야에  
태극기 높이 달고 운동하여 보자.

**을사조약과  
첫 번째 음독**

1905년 신규식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지방 진위대를 연결하여 의병을 일으키려 했으나, 실패하자 음독자살을 기도하였다. 그는 생명이 건졌으나 오른쪽 눈 시신경이 마비되어 외견상 흘려보는 인상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호를 ‘흘겨본다’는 뜻으로 호를 예관(睨觀)이라고 하였다. 그해 11월 30일 민영환(閔泳煥)은 을사늑약의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였다. 신규식은 그해 12월 애도시 「통곡 민충정공(痛哭 閔忠正公)」을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하였다.

만고의 충절은 해와 달과 밝은 빛 다투었고	萬古貞忠爭日月
일생의 대의는 춘추의 정신 받들었네.	一生大義仗春秋
기우는 나라 붙들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으니	扶傾未遂身先沒
긴 세월 사람들 마다 피눈물 흘리게 하겠구나.	長使人人淚血流

신규식은 1906년부터는 실력양성 운동과 계몽운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해 육군 부위로 진급했고 그의 특기를 살려 한어야학교를 설립하였다.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고 1908년에는 영천학계(靈川學契)를 설립하고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에도 가입하였다. 영천학계는 청주의 산동 신씨들이 교육 진흥을 위해 서울에 설립한 문중 장학재단이다. 신규식은 영천학계의 총무를 맡았다. 기호흥학회는 명칭에서 보듯 경기도와 충청도 출신인들이 민족자강을 위한 교육·계몽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는 말한다. 그는 당시로서는 큰 돈인 1천원을 희사하였다.

1909년 1월 신규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기술 잡지인 『공업계』를 창간하였다. 『공업계』는 통권 4호까지 발행하였으나 1910년 일제가 공포한 보안법에 따라 발행이 금지되었다. 그는 창간호에서 공업이 부국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해도 새롭고 달도 새롭고 날도 새로우니	年新月新日新
모두 새로 나아가는 사업 송축하세.	咸頌新進事業
나라와 집, 몸도 태평할지니	國泰家泰身泰
태평한 복리를 함께 누리세.	共享太平福利

<공업계>

그는 『공업계』 창간 취지문을 "본보 공업계는 대한제국의 부강기초를 건립하고 이천만 公衆의 공업사상을 고취 할 주의로써 實地 수학한 공업 각과의 강의와 외타 공업에 관한 고명한 논설과 신기한 휘문을 편집 간행한다"라고 썼다. 그해 10월 26일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사살하였다. 신규식은

푸른 하늘 대낮에 벽력소리 진동하니	白日青天霹靂聲
6대주의 많은 사람 가슴이 뛰었네.	六州諸子膽魂驚
영웅 한번 성내자 간웅이 거꾸러지고	英雄一怒奸雄斃
독립만세 세 번 부르니 우리 조국 살아났네.	獨立三呼祖國生

<哈爾濱卽事>

라는 한시를 지어 안중근을 추도하였다. 이하 한시의 출처는 모두 『신규식 시문집』이다. 신규식은 그해 대종교에 가입, 그의 사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철(羅喆)을 운명처럼 만났다. 1910년 한일병합 소식을 듣고 다시 음독을 시도했으나 나철에 의해 구명되었다. 신규식은 훗날 다음과 같은 한시를 지어 그 고마움을 표했다.

예관은 억지웃음을 웃으며	睨觀強歎笑
죽을 뻔 했던 지난 일 돌이켜보네.	幾亡在屯遭
신형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神兄會活我
무엇으로 은혜에 보답하랴.	何以報埃涓

<丁巳年自壽詩>

‘神兄’은 대종교에서 대종사를 일컫는 말이다. 신규식은 새로운 각오로 구국운동에 투신하고자 인차리 부친에게 고별 인사를 드리고 신백우(申伯雨) 독립운동 방향을 상의하였다.

**중국으로  
망명하다**

1911년 4월 신규식은 나철의 밀명을 받고 상해로 망명하면서 이름을 신정(申淸)으로 개명하였다. 유고집 『아목루(兒目淚)』를 분석하면, 신규식은 압록강을 건너 안동현을 지나 사하진 요양 고려문 성경 선양 산해관을 거쳐 북경에 도착하였다. 이후 북경에서 조성환을 만나 중국의 실상을 파악한 뒤 그해 12월 상해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후 얼마 안 있어 고향 후배인 벽초 홍명희(洪命熹, 1888~1968)를 만났다. 홍명희는 신규식보다 8년 연하로 의형제처럼 지내며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였다. 홍명희는 장기간 남방에 나섰고 그러자 다음과 같은 한시를 지어 석별을 아쉬워했다.

재주는 뛰어나 강호에 이름 떨쳤거니	聞名江戶才華富
중원에서 악수하며 간담을 헤쳤어라.	握手中原肝膽披
황조가 계신다고 천궁에 알렸으니	昭告天宮皇祖在
상해에서의 맹세는 위인이 알도다.	宣盟海上偉人知
한세상 태어난은 무의식이었건만	併生一世寧無意
청춘과 더불어 또 만날 수 있으리라.	好伴青春可有期
이번에 길 떠나면 천 개의 산과 만 개의 강을 넘으리니	此去萬山千水路
몸조심에 마음 쓰며 용기를 북돋우시라.	願君珍重勉旃之

<贈可人洪命熹>

**비밀결사  
동제사를  
조직하다**

상해 도착 후 가장 처음 알게 된 중국인은 『民立報』의 사원인 서혈아(徐血兒)였다. 신규식은 그를 통해 쑨원 등 중국 혁명의 지도적 인물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쑨원이 이끄는 동맹회에 가입했고, 그것은 2차 신해혁명(1913) 가담으로 이어졌다. 그의 이같은 활동은 국립 한어학교 때 익힌 중국어 실력이 바탕이 됐다. 그가 신해혁명에 가담한 동기는 북벌론과 무관했다. 그는 ‘중국에서 전제군주정을 타파하고 민주공화정이 세워지면 조선 독립을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해 5월 망명자들과 상하이 교민이 늘어나자 독립운동과 교민들의 상부상조를 위한 비밀결사인 동제사(同濟社)를 조직했다. 동제사는 임시정부 수립 전 최대 조직으로 신규식 외에 박은식·김규식·홍명희·신채호·조소앙·여운형·문일평 등이 참여했다. 그는 본부의 이사진을 맡았다. 그의 민족운동의 지침서인 『한국혼』은 동제사 창립 때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1914년 신규식은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사(南社)에 가입, 문학을 통해 중국 혁명지사, 문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였다. 남사는 중국 신해혁명 시기에 활동한 진보적 성격의 문학 단체로 국학·국혼을 강조하는 등 봉건 통치 체제 타파를 부르짖었다. 1916년 스승이자 생명의 은인인 나철이 순교하였다. 그는

어제날 십년동안 서로 속을 터놓고  
비바람 속에서 결의형제를 맺었어라.  
목숨 살린 은혜 다소나마 갚으려는데  
3개 조의 절명시를 차마 볼 수 없구나.

憶昔十年披肝膽  
聯床風雨訂金蘭  
活恩一縷方圖報  
殉命三條奈忍看

<奉悼羅公弘岩神兄五章>

라고 비통해했다.

## 단재와 다른 길을 가다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승리가 확실해지자 민족자결주의로 불리는 ‘14개 원칙’을 발표하였다. 신규식은 독립의 호기로 생각하고 박은식 등과 더불어 신한혁명당·대동보국단·신한청년당 등의 청년단체를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가 이때 조직한 단체들은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그해 9월 11일 이들을 통합하여 통합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결성되었다. 통합 임시정부는 출범과 함께 독립운동의 노선대립으로 갈등과 분란에 휩싸였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노선은 ‘외교독립론’이었다. 그해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1차 대전 종전 회의인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파리강화회의는 철저하게 승전국들의 이익을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국제회의였을 뿐이었다.

임시정부의 외교독립노선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깊은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임시정부 내부에 임정을 유지하지는 옹호파(김구), 개혁하지는 개조파(안창호), 새 정부를 만들자는 창조파(신채호)가 생겨났다. 1920년 이동휘·안창호 등이 임시정부에서 탈퇴했고, 1921년에는 이동녕마저 임시정부를 떠났다. 그해 신채호도 임정과 결별하고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로 변해갔다. 신채호는 1년 후 김원봉(金元鳳)의 부탁을 받고 쓴 ‘오파괴(五破壞)’-‘칠가살(七可殺)’의 「조선혁명선언」을 썼다,

신규식은 이승만의 외교독립노선을 끝까지 지지했다. 그는 망명 초부터 독립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나 연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이승만도 그해 5월 전권을 신규식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 중국 국부 쑨원을 만나다

신규식은 국무총리대리 겸 법무·외무총장이면서 대통령직까지 대행하였다. 이때부터 신규식은 임시정부의 대중국 외교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1921년 10월 신규식이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쑨원의 광둥 호법정부를 방문했다. 호법정부는 쑨원이 위안스카이의 북양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광둥에 수립한 정부를 일컫는다. 『한중외교사화』(민필호)에 의하면 신규식은 그 자리에서 쑨원에게 5개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전달했다.

1.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호법정부를 중국 정통의 정부로 인정함.  
아울러 그 원수와 국권을 존중함.
2. 대중화민국 호국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요청함.
3. 한국 학생의 중화민국 군관학교에서의 수용을 허가하기를 요청함.
4. 차관 5백만원을 요청함.
5. 조지지대를 허가하여서 대한독립군 양성에 도움이 되게 하기를 요청함.

쑨원은 그 자리에서 신규식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여러 가지 원조까지 약속했다. 신규식은 임시정부의 공식 대표로서 광둥정부의 북벌 전례식에도 참석했다. 외교 독립론의 운동가들은 신규식의 광둥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곧 독립을 이룰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한껏 가졌다.

## 25일 동안의 不食, 不語, 不藥

1921년 11월 1차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워싱턴회의가 열렸다. 신규식은 또 한번의 독립외교 호기로 보고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나 한국 문제는 상정도, 거론도 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내정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한 외교독립 방략은 파리강화회의와 마찬가지로 실패하였다. 미국이 쑨원의 호법정부가 아닌, 위안스카이의 북양정부를 중국의 정통 중앙정부로 인정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신규식은 임시정부의 모든 직임에서 사퇴했고, 임시정부의 분열을 자책하며 극심한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25일 동안 불식(不食), 불어(不語), 불약(不藥)을 고집하다 1922년 9월 25일(43세) 이국 상하이에서 숨을 거두었다. 유해는 상해 홍교로 만국공원에 안치되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신규식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 국립현충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 안장하였다.

## 참고문헌

- 박걸순, 2012,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김동훈, 1999, 『신규식 시문집』, 한국문화사.  
 신운용, 2019, 「신규식의 민족운동과 대종교」, 『국학연구』23.  
 오국진, 1994, 「예관 신규식의 교육활동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유장철, 2021, 「예관 신규식의 단군민족주의와 독립운동」,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이금선, 2016, 「신규식의 『한국혼』 연구: 홍명희에게 전한 한시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7, 충북대학교교육개발연구소.  
 충북도의회, 2019, 『충청북도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검토』.  
 민필호, 1974, 『한중외교사화』, 독립유공장사업기금운용위원회.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

<충북일보>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 청주시민의 최초 극장, 액좌 2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

### 지역 주민의 극양식 체험장, 액좌

일제강점기인 1916년 12월 청주 남문로 중앙공원에서 일대에 개관한 청주의 유일한 극장 ‘액좌’는 1937년 9월 철당간 부근으로 옮겨 ‘청주극장’으로 개관할 때까지 약 20년간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충북도민들의 문화예술, 특히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예술을 꽃피운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지에서 청주를 찾은 예술인과 단체들이 지역 주민, 예술인들과 문화예술로 소통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연극 분야를 살펴보면, ‘액좌’설립 2개월여가 지난 1917년 2월 액좌극장 건축 이후로 내지(內地)의 신규 극좌(극단)와 조선의 광고예기조합 등이 이곳을 찾아 공연, 하룻밤에 수백 명이 모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일찍부터 청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해 일본에서 건너온 신극과 구극(가부키) 단체가 액좌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광주기에조합’은 기록상으로 ‘액좌’의 무대에 오른 국내 첫 극단으로 평양에 근거지를 두고 전통 가무와 신파극을 공연한 연예집단으로 확인된다. 1919년 8월에는 신청일 일행이 액좌를 찾아 신파극을 공연했는데, 남녀노소가 물 밀리듯 하여, 5일간이나 연장 공연했다고 했다(『매일신보』, 1919.9.3.). 1920년대부터는 공연이 더욱 활발해져 1935년까지 외지 극단의 액좌 공연 기록이 확인되는 것만 30~40차례가 된다. 무엇보다 1920년대에는 액좌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민이 주체가 된 소인극 연극도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소인극’은 전문 직업 예술인이 아닌 청년회나 학생회 등이 주도한 일종의 아마추어 연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북 지역민에 의해 1920~30년대 ‘액좌’에서 진행된 소인극 공연은 모두 16차례 정도 확인되는데, 청주를 찾은 외지 극단의 공연 횟수보다 적다.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나 소인극을 주도했던 청년회 단체들의 공연이 각 지역의 청년회관, 장터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 순회공연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사에서는 우리 지역을 포함한 각 지방연극의 태동에 큰 충격을 끼친 것으로, 김우진, 조명희 등 동경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극예술협회가 고학생과 노동자들의 모임인 동우회 요청으로 순회극단을 조직, 1921년 7월과 8월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국내의 전국 각지를 공연한 사실을 주목해왔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충북지역에서도 소인극이 활발히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1920년 8월 28일에는 제천청년회(1920.7.창립)가 임시회 개최 후 덕육부 주최로 읍내 운동장에서 관람자 수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파 연극 <조혼의 폐해>를 공연하여 초유의 성황을 이뤘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동아일보』, 1920.8.28.). 제천청년회가 주도한 이 연극을 충북 최초의 근대적인 극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최초의 소인극은 1921년 3월 개성 지역 고려청년회의 소인극이라는 설<sup>1)</sup>, 전북 고창청년회에서 1921년 1월 7일 신년회 연회 중의 여흥을 위해 연극을 한 것이라는 설<sup>2)</sup>이 있는가 하면 1920년 11월 25일 서울 승동예배당의 가극대회가 문헌상 처음 나타난 소인극이라 주장도 있다.<sup>3)</sup> 제천청년회의 소인극은 이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1)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출판부, 1996. 514쪽.

2) 이원희, 「전북 연극사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1997, 48쪽.

3) 윤진현, 「1920년대 전국순회극단과 인천의 소인극」, 『인천학연구』, 2003, 393쪽.

당시 소인극을 주도한 각 지역 청년회는 1920년 들어 본격적으로 창립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1920년 6월 청주청년회, 7월 제천청년회, 8월에는 괴산청년회, 9월에는 영동청년회가 연이어 창립,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청년의 시대적 사명, 청년 각성을 주제로 순회강연단과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었고, 스스로 강연단을 꾸려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야학과 강습소의 설립과 운영 등 실질적인 계몽사업에도 뛰어 들었다. 이 과정에서 소인극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계몽적 내용으로 주민을 각성시키는 동시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금을 통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이른 시기인 1921년 5월 29일~6월 1일 사이 괴산청년회의 소인극 공연 기록은 이러한 사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청년회관 내에서 소인극을 거행하여 매일 밤 4,5백 명의 관람자가 입장하여 초유의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 내용은 미신 타파, 풍속개량 등으로 목적을 삼아 흥행함으로 다대한 찬성을 받아서 유지들의 많은 찬조를 이끌어냈다.”(『동아일보』, 1921.6.15.)고 했다.

한편 청주 ‘앵좌’최초의 소인극 공연은 제천청년회보다 8개월 늦은 1921년 4월 27일, 청주 금용조합 총회 이후 일반 조합원과 내빈을 위해 ‘유쾌한 소인극’을 공연했다(『동아일보』, 1921.5.3.)는 기록이 있고, 6월 18일에는 청주청년회가 주도한 청년회 창립 1주년 기념식 후 ‘소인극’을 공연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동아일보』, 1921.6.15.).

이어 청주 청주청년회는 1921년 8월 연극단을 꾸려 각 지역 청년회 협조를 얻어 순회공연에 들어갔다. 일제강점기 우리 지역의 연극단 규모로는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는데, 1921년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정으로 임성록을 단장으로 10여 명 규모로 소인극단을 조직하여, <삼인의리(三人義理)>란 연제로 충북 전 지역 및 충남 일대 순회공연을 개최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앵좌’에서 공연을 가졌다.(『동아일보』, 1921.8.19.) 이들이 연기한 작품 <삼인의리>는 가는 곳마다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동정금(기부금)도 얻었다고 했다. 이 작품은 당시 기사 내용 “몽중 생활을 면치 못한 지방 인사에게 무한한 각성을 주었다”든가, “연극 중의 의리나 권선징악의 적절함은 오백여 만장 인원을 감흥케 하였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계몽을 바탕으로 한 신파극 형식의 연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삼인의리>는 한 달 지난 1921년 10월 충북의 영동청년회가 극단을 꾸려 충남북 지역을 순회할 때도 그 레퍼토리가 되었는데(『동아일보』, 1921.10.6.), 작품을 쓴 주체를 밝힐 수 없으나 소인극 역시 대본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천청년회가 지역 최초로 공연한 소인극 <조혼의 폐해> 역시 영동청년회 순회극단의 주요 레퍼토리 중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 볼 때(『동아일보』, 1922.1.21.), 각 지역 청년회 간 교류를 통해 대본을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 ‘순회공연’ 방식은 1925년 7월 말에는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지역 현안이었던 유치원 설립을 홍보하고 지원금을 모금하고자 순회극단을 조직한 데서 드러나듯이 초창기 지역 연극 활동에서 중요한 패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동아일보』, 1925.7.26.).

1925년 3월에는 영동군에 있는 계산연극단 일행 남녀 11인이 전라남북도 순회공연을 거쳐 청주에 도착, 5일부터 청주청년회 후원으로 앵좌에서 공연하였는데 천진난만한 소녀의 가극과 무도는 박수 환호 속에 성황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 ‘앵좌’는 지역의 각 연극단체가 소통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했음도 알 수 있다(『동아일보』, 1925.3.9.).

1925년 7월 4일에는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경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최초 근대식 학교인 청남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앵좌에서 가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을 개최했다. 만원 관중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중 의미 깊은 가극 <매화녀>는 보는 이에게 특히 많은 감흥을 주었으며, 여성만으로 출연진을 구성한 <동정의 눈물>도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했다(『조선일보』, 1925.7.9.). 지역 연극을 주도한 1세대는 청주청년회와 함께 1921년 창

립한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야학과 강습소 운영,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계몽 활동으로 지역 시민운동의 서막을 연 이 여성단체에 관한 연구도 시급해 보인다.

1927년 1월에는 청주청년회가 회의 부흥을 위해 음력 정월 3일(2월 4일)부터 이틀간 액자에서 소인극(연예회 개최)을 개최하려고 했다가 ‘사정으로 연기’했다는 기사(『중외일보』, 1927.1.30.)에 이어 1927년 2월 10일부터는 이틀간 노동야학을 설립하고 그 유지금 확보를 위해 소인극을 개최한다는 보도가 등장하지만(『동아일보』, 1927.2.9.), 사후 기사가 없어 실제 공연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소인극 대부분은 이처럼 강한 공공적 목적 아래 계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회의 연극은 야학·강습소의 설립과 경비 마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해(水害), 한해(旱害) 등의 구제 및 각종 재난 동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도 마련되었다. 1925년 8월 3일에는 청주청년회를 비롯한 청년단체들의 연합으로 조선일보 등 3지국의 후원하에 수해 구제 소인극을(『조선일보』, 1925.8.2.), 1926년 7월 30일부터 이틀간은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역시 수해 구제를 위한 가극을 공연했다(『매일신보』, 1926.7.31.).

1929년 4월 16일부터 이틀간은 호서기자단 주최로 액자에서 충북한해구제연예회를 개최했는데, 지역 청년들의 소인극 공연과 함께 이번에는 예기(藝妓)들의 공연이 있었다고 했다(『매일신보』, 1929.4.13.). 시민 위안의 이름으로 액자의 무대에 자주 올랐던 지역 대형 요릿집의 예기들이 지역 공연예술사에서 기여한 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 듯하다. 1930년 1월 5일에도 동아일보 지국에서 새해맞이 독자 위안 공연 행사를 열었는데, 청주의 영락관, 태평관 예기의 음악 및 연주에 이어 청주의 유지 청년들이 신파극을 공연했다고 했다(『동아일보』, 1930.1.8.).

1931년 7월에는 10일부터 양일간 청주동진구락부가 소인극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시기 불리하다는 이유로’ 중지케 하여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동아일보』, 1931.7.14.). 1930년대 들어 청년회가 주도한 연극은 거의 확인하기 어렵다. 일제에 의해 청년회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34년 9월 청주에서 수해 동정(기부금 모금)을 위한 어린이극 공연이 열렸다(『조선일보』, 1934.9.9.)는 기사를 끝으로 액자에서의 소인극 공연 기록은 역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청주극장 시기(1938~)에도 일부 극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1938년 10월 11일에는 충북 각 군 생도의 아동극 대회를 청주극장에서 개최하여 호평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연 제목 <日本刀, 黎明의 노래>에서 드러나듯 일제의 시국 홍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부산일보』, 1938.10.13.). 11월 2일부터 이틀간은 청주군 군사후원연맹주최로 한커우(漢口) 함락 축하 및 출정 군인 유가족 위문을 위한 소인 연극이 청주극장에서 공연되었다(『부산일보』, 1938.11.1.). 일제의 군국주의 야욕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연극을 진정한 우리 지역의 연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인극에 가까운 만담을 제외하고는, 외지 유입 전문극단의 공연이든, 지역민들의 소인극이든 1935년을 경계로 극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라는 불리한 연극적 환경에서도 의미 있는 지역 연극사를 기록한 기간은 결국 1916년 액자의 설립에서 해체 논의가 시작된 1935년까지의 기간에 수용된다고 할 수 있다.

액자는 다른 지역 대부분 극장이 상업주의에 기반을 둔 개인 경영 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청주읍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기에 청주청년회를 비롯한 지역 청년단체 소인극 무대로 활용될 수 있었고, 각종 공공의 사업을 위한 다양한 극 공연을 펼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은 액자가 있었기에 다양한 근대극을 체험할 수 있었고, 소인극 공연을 통해 직접 연극의 주체도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서구적 극양식의 도입기에 액자는 지역 주민들의 극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 모양도 특성도 다양한 충북의 동제장

이상희(충북대학교)

## 충북의 동제장 이야기

인간은 공간을 정해 시간을 쓰며 인생을 남긴다. 우리의 공간은 충북의 산하이고, 시간은 그 속에서 우리가 일궈내는 서사도 흐른다. 민속 공부하러 다니다 보면, ‘이렇게 깊은 산골에도 마을이!’ 할 정도로, 사람들은 산하의 곳곳에 터를 잡아 생활공간을 삼고 일생을 담아낸다.

우리가 사는 충북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녔다. 충북은 우리나라의 한복판에 자리한다. 경기, 강원, 경북, 전북, 충남, 대전시의 6개 도로 둘러싸인 남북으로 긴 지리적 형상은, 남북 간 문화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특히 노령산맥은 충북도의 북반부에서 한강과 금강 간의 북남 주행의 분수령이기도 하다. 그 동쪽 사람들은 한강 물을, 서쪽 사람들은 금강 물을 마시고 살아간다. 그리고 피반령 근처 속리산 연결의 구릉맥은 그 북쪽 사람들에게 한강물을, 남쪽 사람들에게 금강 물을 마시게 했다. 이 노령산맥과 피반령 속리산의 구릉맥은 인간의 생존과 농경사회의 근간인 물을 얻어 쓰는데 지역을 달리하게 한 지형이기도 하다.(임덕순(2000), 충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권)

지형 또한 백두대간의 중앙 정간에 속하는 차령산맥, 노령산맥, 소백산맥이 도의 경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뻗쳐 있어 산맥마다 문화적 특색을 띤다. 차령산맥은 강원, 경기, 충남과의 도계를 이루고, 노령산맥은 충북의 중앙부에 높이 솟아 있다. 때문에 지리적으로 동부지방(고구려 쪽)과 서부지방(백제 쪽) 및 남부지방(신라 쪽)으로 충북을 삼분하기도 한다.(이원근(1980), 삼국시대 성곽 연구)

자연의 특색이 인간 사고에 영향을 주고 그 사고는 말씨로도 드러난다. 충북은 등어선(等語線)의 두께에 따라 <단양방언권>, <청주방언권>, <영동방언권> 셋으로 나뉘기도 한다.(김충희(1983), 충청북도의 방언 구획 시론) 삶의 터전이 다르다 보니 문화도 다양해진다. 이를 서원문화권, 중원문화권(김영진(1995), 신화 없는 양반문화), 또는 남한강 수계문화권, 금강 수계문화권(이창식(2003), 충북의 민속문화)으로 문화적 특색을 나누기도 한다. 큰 산하 아래 다채로운 문화를 형성하며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큰 산맥이 셋이나 솟아 있고, 큰 물이 두 줄기나 갈라 흐르는 충북지역의 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을까? 지형의 특색과 문화 형성의 관계를 고려하면, 시작은 민속문화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민속신앙 이야기가 가장 뚜렷하다. 민속신앙은 무위한 공간에 인간의 염원을 담아 토속신앙으로, 또 공동체 마음을 담아 동제로 전승된다. 공동체 신앙인 동제는 자연의 특성과 그 속에서 배태된 문화의 특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충북은 다양한 공동신앙의 공간을 보존, 전승하고 있다. 내륙 산간 지역에서 전승되는 공동신앙의 제장(祭場)을 충북에 모아놓은 듯 다양하다. 다양한 지형과 그 문화적 특색에 따라 지역마다 전승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고사’ 또는 ‘동지사’라고 통칭해 모든 동제를 아우르기도 한다. 산제당, 동제당, 서낭당, 수구맥이(수살맥이), 장승배기 등에 차례로 제를 올리며 신격을 나눠 다양하게 전승하기도 한다. 제천, 단양 지역은 서낭당 중심의 서낭, 산신 제당을 중심으로 전승된다. 옥천, 영동, 보은 남쪽 지역은 탐, 장승, 수목 등의 탐 신앙(수구맥이)가 중심을 이룬다. 청주, 괴산, 음성, 진천 등 여러 지역은 산신제와 당고사, 탐제(수살), 용왕제 등 여러 형식으로 혼합 구성된 동제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다채로운 동제 문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동제를 올리는 제사 차례, 의례이다. 충북지역의 공동신앙은 유교식 제사 차례를 차용해 전승하는 것이 공통이다. 제수 차이나, 소지나, 헌작, 마중시루 등의 지역별 특징을 보이기도 하나, 마을 주민이 제관이 되어 유교식 기제사 의례를 중심으로 전승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럼 민속신앙의 시작인 천신숭배 의식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염원한 기록은 단군신화에서 찾는다. 하늘에 닿길 염원하는 천신 숭배 의례는, 자연스레 산신 숭배로 이어진다. 천신의 아들 환웅(桓雄)이 단군(檀君)을 낳고, 단군은 산신(山神)이 된다. 이 천신숭배 의식은 조선 중후기 무렵 마을 중심으로 공동신앙으로 자리 잡으며 다양하게 분화한다. 천신 숭배가 자연스레 산신 숭배가 되고, 이 산신 숭배가 마을로 내려와 동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천신신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제로 총칭되기도 하고, 천신이 산당으로 좌정하고 다른 신격도 동제 신격으로 제를 올리기도 하는 등의 변화를 겪는다. 충북은 거의 모든 유형이 전승된다. 살펴보면, 천신이 산신으로, 산신이 마을신으로 동제 신격이 변화를 겪으며 좌정하는 유형이 있다. 이는 마을에 공동신앙 신격이 천신에서 마을신으로 바뀌며 전승하는 것이다. 신격의 변화는 동제와 동제장 이름도 바뀌며 동고사, 수살맥이, 서낭당, 산신당, 용왕, 장승배기 등으로 불린다. 시간을 포개면 천신, 산신, 서낭이 한 이웃한 제장에 좌정하기도 한다.

다른 유형은 천신도, 산신도, 서낭도, 용왕도, 장승도 한 마을에 좌정한 유형이다. 이때는 상당, 중당, 하당 등으로 신격을 차별하며, 제사 차례, 제수 진설, 제장 위치와 형식에도 차이를 드러낸다. 큰 산과 큰물이 자리 잡은 충북은 이 모습을 모두 보존, 전승한다.

앞서 말한 대로 제천의식은 삼국시대부터 산신 의례로 변화하는데, 이를 보여주는 전승을 충북 진천군 초평면 평산리, 금곡리 등에서 볼 수 있다. 삼국 중 신라는 국가 제의를 모두 산신 제의로 행할 정도였는데(한국민속신앙사전, 403), 옛 신라 영토였던 진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진천지역처럼 천신제라는 동제를 전승하기도 하지만, 이름이 바뀌는 것이 대다수이다. 천신제장은 후대로 흘러가며 산제장으로, 동제장으로 변화를 겪는다. 자리가 바뀌며 제장 구성과 형식도 변화를 겪는다. 산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인간친화적 변화를 겪는다. 바로 동제의 신격인 산신, 서낭, 장승, 수살, 용왕, 당신 등이다. 각기 차이를 보이며 동제당에 좌정한 신격이지만 마을의 안녕을 염원하는 자리임은 같다.

이와 달리 모든 신격을 전승하는 마을도 있다. 이런 곳은 마을에 여러 제장이 분포한다. 우리나라 마을은 대부분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다. 주로 산을 등지고 남향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 뒷산에 산신을 모시고, 마을 입구에 서낭을 모시며, 마을 곳곳에 동신-용왕, 신목, 장승 등을 모신다. 이 신격들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북부지역처럼 서낭 중심의 단일 동제로 산제당과 서낭당 중심으로 전승되기도 한다. 또는 남부지역처럼 돌탑, 수구맥이를 중심으로 동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또는 신격에 따라 제장이 자리하기도 한다. 제장이 여러 곳인 지역인 경우는 상당과 하당의 복합 제장에 동제를 올린다. 신격에 따라 전승되는 동제는 천제, 산제, 서낭(수구), 샘제의 순서로 동제를 올린다. 이는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신앙의 거의 모든 신격을 전승하는 것이다.

청주시 용정동 이정골은 천제, 산신제, 장승제의 순서로 제사를 올린다. 이정골은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이나 보름날 동제를 올린다. 천제와 산제를 올리는 제장은 마을 뒷산 낙가산 중턱에 위치한다. 천제당은 큰 자연 암석이다. 그 아래 산제당은 당사형 제장으로, 내부에 산신도와 제단을 설치해 놓았다. 마을의 동제 신격은 제를 올리는 순서에서 상당과 하당의 차이를 보

인다. 제일 높은 천제부터 제를 올리기 시작해 산제사로 이어진다. 그 후 마을로 내려와 마을 어귀에 장승제를 지내며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한다.



▲ 위에서부터 ①천신제, ②산제사 올리는 모습  
◀ 장승제 올리는 모습

신이 좌정한 제장의 형식을 살펴보면, 천신제장은 오래된 제장인만큼 대체로 자연형 제장 형식이다. 마을 뒤 큰 바위나 평토단 등이 일반적이다. 그 옆에 생명력을 상징하는 샘과 신목이 있기도 하다.

산신제장도 본래 자연형 제장이었다. 천신의식이 산제장으로 변용되면서 천신제를 지내던 곳의 신격이 바뀐 경우도 많다. 이 산제당은 후대로 오면서 인간이 집을 본 뜬 가옥 형식의 제당형(祭堂形 또는 당사형)과 어우러진 제장 형식으로 변화한다. 산신에게 집을 지어 주고 그 안에 산신도나 신위 등을 모시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때 산제장은 당집과 신목의 구성이 일반적이다. 당집은 문을 닫고 담을 쳐서 보호한다. 그 옆의 신목은 소나무가 가장 많다. 상록수인 소나무는 음향오행의 목성(木性)으로, 곧 아침 해가 뜨는 동방(東方)을 상징하며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충북이 전승하는 제당 형식은 다양하다. 수목, 돌, 누석제단 등의 다양한 자연형 제장은 당연히 보존되고 있다. 제당형 제장 형태인 당사 중심의 구조와 자연형 제장과 당사를 복합한 형식의 제장도 보존 전승된다. 특이한 형태로 자연형과 제당형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누석 위에 지붕을 얹은 복합형 제장 구조까지 그 모습이 다양하다.



▲ 괴산 은티 산제장



▲ 단양 금곡 산제장



▲ 보은 산외 문암 산제장



산신제가 마을신앙으로 전승된 것은 조선 후기이다. 마을마다 산신당, 산왕당, 서낭당, 성황당 등을 만들어 산신을 숭배한다. 이에 따라 산 정상이나 중턱에 위치하던 제당이 마을 가까이 이동한다. 이는 산악의 신이 농경화한 것으로, 인간적 성격이 강화된 형태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마을 앞 평지에 수목이나 입석을 조성한 후 당산이라 부르며 동신제를 지내기도 했다. 평지에 자리 잡은 마을은 풍수사상의 영향으로 마을 어귀에 당산을 세워 산신제 또는 당제를 지냈다.

보은군 삼승면 탄금리 동제장은 마을 앞 나무숲을 조성한 당산이다. 탄금1리 신목은 버드나무, 소나무, 느티나무다. 이 신목은 ‘어떤 사람이 자치기를 하다가 꽃아놓은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신목이 되었다.’는 유래가 전한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관리한다.(윤병호, 남, 1931년생, 이승대, 남, 1935년생)

산신제당과 더불어 많은 분포를 보이는 서낭당도 다양하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서낭은 돌무더기에 오색의 천들이 감겨 휘날리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개인 비손과 처성의 장소로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매달아 놓는 현납속(縣納俗)의 풍습이다.

서낭은 개인 비손과 마을의 동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고갯길의 서낭은 개인 비손과 처성의 형태로, 주로 무가의 <성조본가>에 나오는 황우량의 처를 범하려다 벌을 받아 길가에 묻혀 서낭신이 된 ‘소진량 설화’와, 등금장수와 그 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대나무에 백지나 비단 등을 걸고 딸을 위로하기 위해 양밥을 주는 ‘등금장수전설’, 전시에 석전으로 활용하기 위해 누석했다는 ‘석전전설’ 등이 있다.(한국민속신앙사전)

반면 공동신앙으로서의 서낭제는 돌무더기와 신목의 결합, 또는 당산의 형태로 전승된다. 서낭의 어원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산왕(山王), 천왕(天王), 상황(上皇) 등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서낭이 성황과 혼동되기도 했으나, 서낭은 우리 토착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한다. 성황은 중국의 성황을 받아 관치, 읍치의 의례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우리 신앙이 원천적으로 천신을 모태로 점차 분화한 것으로 본다면, 서낭은 몽골, 시베리아, 중국 북부 등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전승되는 토속신앙인 오보신앙이 전래되면서 수수관계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신앙 제장으로서의 서낭당의 고유한 형태는 돌무더기와 수목이 복합된 것이다. 서낭당의 형태는 돌무더기 모양, 돌무더기 위에 입석을 꽂고 그 옆에 신목이 서 있는 형태, 돌무더기와 장승 신목이 서 있는 형태, 돌무더기와 신목, 당집으로 구성된 형태 등으로 그 모양을 달리한다. 수목 밑에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형태는 서낭당 이외에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학자들은 돌무더기와 수목의 결합을 서낭당의 고유 형태라 한다. 다양한 모양의 서낭 또는 수살을 전승하는 충북 지역은, 서낭당의 고유 형태도 전승한다. 충북 남쪽 지역은 마을 입구나 마을 중앙에 수목과 돌, 수목과 장승, 돌탑, 장승, 돌탑, 수목 단독 형태 등 다양한 모양의 자연제장형 서낭당이 전승되고 있다.



▲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 마을 앞 동제당



▲ 단양 단성 화산리 서낭당

북부 지방의 서낭은 고유의 수목과 돌탑 형태의 모습과 함께, 변화된 서낭당의 모습도 전승된다. 그 변화는 대체로 당집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산제당과 동격의 신격으로서 서낭당이 동제의 신격으로 제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충북 북부지역은 산신제와 서낭제 중심의 문화로 전승된다. 이 신격은 동제 의례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제장의 위치와 무관하게 산제당 서낭당 등의 명칭을 혼용한다. 다른 지역이 마을 뒷산 중턱이면 산제당, 마을 어귀나 마을 근처면 서낭당이라고 제장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산 중턱에 위치해도 서낭당으로 부르며, 마을 입구에 당사 형태의 제장도 서낭당이라 부른다.

단양의 서낭은 산신과 동격으로 좌정해 마을 뒷산이나 마을 어귀에 자리한다. 서낭당의 모습은 당집 형식과 자연형인 수목, 암석 구조의 동제당과, 당집과 수목이 결합한 구조의 동제당도 전승된다. 단양군 서낭당의 특징은 당사형인 당집에서 엿볼 수 있다. 바로 개방형 가옥 형태를 띤 당집이다. 다른 지역의 당사형 제장이 돌담과 문을 달아 폐쇄적으로 당집을 보호 금기시하는 반면, 단양 지역은 문을 달지 않은 개방형 당사형을 쉽게 볼 수 있다. 당집의 재료가 시멘트 이든, 목재이든, 벽돌이든 재료와 상관없이 문을 달지 않은 개방형 당집으로 서낭당을 전승한다.

높은 산, 깊은 물 따라 형성된 충북 문화의 전형인 공동신앙은 이토록 다채롭게 다양하게 보존되고 전승되고 있다. 각기 뾰족한 자연의 모양대로 그 속의 사람들도 각기 나름으로 문화를 형성해서 발전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오늘에 이른 공동신앙 제장은 오래됐지만,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다.

## 충북의 영화인

윤정용 (문학평론가)

영화는 연극, 회화, 무용, 조각, 문학, 음악에 이어 '제7의 예술'로 불린다. 연극, 회화, 무용, 조각, 문학, 음악은 그 연원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즉 어떤 장르가 더 오래되었고, 그 장르에서 어떤 작품이 최초의 작품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반면 영화는 언제 태동했는지, 어떤 작품이 최초의 작품인지가 비교적 명확하다. 주지하듯 세계 최초의 영화는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가 연출한 <열차의 도착>(1895)이다. 그에 따라 공식적으로 영화의 원년은 1895년이다. <열차의 도착>이 단순한 기록영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자는 조르주 멜리아스의 <달나라 여행>(1902)을 최초의 영화로 꼽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간에 영화는 다른 예술 장르와 다르게 그 연원과 연혁이 명확하다.

영화는 제7의 예술이라는 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예술이다. 영화는 촬영할 때는 카메라, 상영할 때는 영사기와 같은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이다. 영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말하는 3막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영화는 '스토리'라 부를 수 있다. 또한 영화는 '예술'이기도 하고 산업이기도 하다. 배우들이 '드라마는 작업, 영화는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영화가 예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동시에 영화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파생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산업'이다.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영화는 '힐링'이고 '소통'이다. 하지만 다른 예술 장르도 힐링과 소통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힐링과 소통을 영화의 유일한 영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화는 다른 예술 장르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하다.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간, 돈, 인력, 기술, 공간 등 많은 자원이 요구된다. 심지어 저예산 영화라고 하더라도 제작하는 데 다른 장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영화는 일단 제작 후에는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즉 언제든 어디서든 쉽게 상영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영화가 예전처럼 꼭 극장에서 필름의 형태로 상영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소구성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영화는 심리학, 정치, 법, 사회, 종교 등 전혀 다른 분과 학문과 쉽게 결합될 수 있다. 요컨대 영화는 이처럼 장단점이 명확하다.

하지만 영화는 자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전술했듯이 영화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지역성'을 전면에 내세우기가 어렵다. 일반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연극, 회화, 무용, 조각, 문학, 음악의 경우 특정 지역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영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지역 연극, 지역 문학, 지역 미술 등은 상정할 수 있지만 지역 영화는 상정하기 어렵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특정 지역을 영화 소재 또는 공간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지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또한 특수성, 즉 '지역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글의 제목은 ‘충북의 영화인’이다. ‘충북의 영화인’에서 충북에 방점을 두면 일반적으로 보통 충북 출신의 영화인을 가리킨다. 충북 출신은 아니지만 충북에서 활동하는 영화인, 또는 충북 출신도 아니고 충북에서 활동하지도 않지만 충북의 정체성을 잘 담아내는 영화인을 가리킬 수도 있다. 기준이 어떨든 간에 ‘충북’이라는 지역이 핵심이다. 반면 ‘충북의 영화인’에서 영화인에 방점을 두다면 영화계에 종사하는 모든 직업인, 즉 배우, 감독, 작가를 비롯한 영화 스태프, 심지어 영화평론가를 포함한다. 이 글은 후자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충북’의 모든 ‘영화인’을 담아낼 수 없다. 일단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필자의 능력이 한참 모자란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지면과 정해진 시간이라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오로지 개인적인 기준으로 충북의 영화감독, 영화평론가, 영화배우 가운데 단지 몇몇을 살펴보려 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북지역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서원대, 중원대, 세명대, 충청대 등 여러 대학에 연극, 영화, 방송, 멀티미디어 관련 학과가 신설되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청주대 연극영화과는 최근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부터 꾸준히 성과를 계속 내고 있고 최근 들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주지하듯 청주대 연극영화과는 비수도권 지역 연극영화과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이계백 감독은 유해진을 주연으로 제작한 영화 <력키>(2016)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그는 이미 <야수와 미녀>(2006)와 <남쪽으로 튀어>(2012) 등의 제작을 통해 능력을 입증했다. 김정민 프로듀서는 <짜패>(2006)와 <베테랑>(2014)을 제작했다. 정지훈 프로듀서는 <최종병기 활>(2011),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오빠생각>(2015) 등을 제작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청주대 연극영화과 출신의 영화인들은 현재 한국영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 앞서 충북 출신으로 한때 한국영화계의 중심이었던 인물이 있다. 다른 아님 영화감독 정지영이다. 그는 청주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한국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김수용 감독의 조연출을 하다가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1982)로 감독으로 정식 데뷔한다. 1980년대에는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990년대 들어 큰 주목을 받게 된다. 그 시작은 <남부군>(1990)이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성공하며 한국 영화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한다. <하얀 전쟁>(1992)과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4)를 연이어 발표하고 뛰어난 연출력으로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와 영화상에서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한다. 한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부러진 화살>(2011), <남영동 1985>(2012), <블랙 머니>(2019)를 통해 감독으로서 재기에 성공한다.

정지영 감독은 특히 실화 또는 실존 인물에 바탕을 둔 영화의 연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예컨대 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남부군>은 실제 빨치산이었던 이태의 소설을 장선우의 각색으로 연출한 영화로 “한국 전쟁에 대해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라고 평가를 받는다. <부러진 화살>은 2007년 석공 사건을 다루고 있고, <남영동 1985>는 정치인 김근태가 민주화 운동 시절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으로 1985년 9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받은 22일을 다루고 있다. <블랙 머니>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의 진실을 다루고 있다. 지방 소음의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소년들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수사반장의 이야기를 그린 <소년들>(2022)은 1999년에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론스타 게이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금융 사건을 추적하는 검찰 내부의 갈등을 그린 영화 <블랙 머니>의 한 장면. 사건을 추적하는 검사 양민혁 역할을 한 조진웅은 이 영화를 두고 “눈 뜨고 코 베인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정지영 감독은 대한민국 사회의 이면을 조명한 ‘한국 영화계의 명장’이다. 그의 영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실화가 주는 강렬함과 ‘사건을 바라보는 담담한 시선’으로 요약된다. 영화감독을 넘어 영화인으로서 정지영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스크린 퀴터’다. 그는 스크린 퀴터를 지키기 위해 결성한 영화인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등 스크린 퀴터 문제에 대해 한국 영화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의 선두에 서기도 했다. 그는 스크린 퀴터를 지키기 위해 UIP 직배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뱀을 풀어놓는 테러를 감행했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정지영 감독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 반대했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천안함 프로젝트>(2013)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개봉 도중 보수 단체의 압력으로 상영이 중단되자 그는 ‘소통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의 말처럼 “힘 있는 자가 [시민들에게] 의문을 더 이상 갖거나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면 소통이 막힌다.” 현재 정지영 감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감독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가 영화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깨끗하고 차갑게 전하는 씨네 아티스트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현역이다. 그는 과거의 감독의 아니라 동시대 감독이다.

청주대 연극영화과는 서울의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1995년에는 중부권 최초로 연극영화학과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전문적인 학식과 기량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청주대 연극영화과는 영화 전문 인력 배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상문화운동을 주도하며 넓게는 한국영화사 좁게는 충북영화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수남 교수가 있다. 그는 청주대 연극영화과 교수 임용 전에는 극단 ‘거론’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연출했고, 교수 임용 후에는 연극과 영화 관련 수많은 학술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그의 논문과 저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하고 우수하다. 주제 또한 영화이론, 영화사, 연기론, 작품론, 감독론, 메타비평 등 다양하다. 심지어 「한국영화 문화의 사유와 쟁점」이나 「인터

넷 영화 관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의」 등의 논문에서는 영화문화와 영화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한다.

김수남 교수의 수많은 저서 가운데 몇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화예술 기초강독』은 영화미학, 영화사, 영화제작, 영화평론 등 영화에 대한 기초를 설명하는 입문서다. 특히 영화를 보는 관점을 기술적인 메커니즘의 측면보다 영화를 복합예술로서 분석하는 총체예술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영화제작 기술론을 영화의 미장센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영화 예술의 이해』는 미국과 유럽의 실험영화를 비롯한 영화 예술론뿐만 아니라 세계영화사, 한국영화사, 북한영화사까지 일별한다. 『영화 예술 입문』은 세계영화사의 고찰을 통해 한국 영화의 역사적 위상을 알아보고, 영화제작 기술 분야의 이해를 바탕으로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서술한다. 또한 영화문화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영화평론의 방식을 소개하고 영상문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영화예술의 모든 것』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이론은 어디서부터 접해야 하는가, 영화 예술은 영화사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왔는가,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영화를 다른 예술처럼 형식적인 구조물로서 이해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등 영화와 관련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조선 영화사 논점』은 조선에 영화가 전래된 이후 영화문화가 조선 대중의 의식 변혁에 미친 영향을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이전에 협률사에서 시작된 우리의 극장 문화와 영화문화와의 관련성을 조망한다. 연극문화를 비롯한 개화기의 예술문화의식이 영화문화에 수용된 이후의 조선영화사의 흔적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다. 『광복 이전 조선영화사』는 조선영화에 대한 기록은 물론 영화제작 과정의 역사적 제 논의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면서 광복 이전 조선영화의 진면목을 예거한다.

무엇보다도 총 4권으로 된 『한국영화감독론』은 감독별 영화 스타일과 시대의 흐름을 짚어내는 역작이다. 각각 일제 강점기 조선영화작가들이 쟁취한 조선영화 존립, 해방 뒤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영화의 부활을 이룩하고 한국영화의 세계화를 꾀한 한국영화작가들,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관통하는 산업화한 한국사회에서 속출하는 사회문제와 독재정권에서 파생된 정치적 여러 문제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출시킨 1980년대 대표적인 감독군에서 1990년대를 넘어서서 전환기의 새로운 한국영화를 모색해온 새로운 감독군들에 이르는 그들의 자화상, 서구 ‘작가주의론’의 중심사상인 ‘영화감독 우위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한국영화작가론’을 다룬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출간된 『한국영화 전복의 감독 15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리랑>의 나운규와 <유랑>의 김유영부터 <악어>의 김기덕과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의 홍상수까지 조망한다. 『한국영화작가 연구』는 한국 영화감독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과 작품세계, 연출했던 작품만큼이나 극적이었던 그들의 인생역정을 한국의 작가주의 재해석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즉 한 영화감독이 영화인으로서 한 시대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의 인생이 영화 창조 작업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추적한다. 김기덕, 홍상수 등 현재의 문제적 감독들도 다루지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봉래, 고영남, 정장화, 이강천 감독 등 과거의 감독들도 다룬다.

『한국영화문화』에서는 한국영화문화 현황을 고찰한다. 『한국독립영화』는 한국독립영화의 역사

를 서술하며 그 정체성과 미학을 탐색하고 있다. 한국의 독립영화사의 흐름을 일제강점기 독립의식의 발로에서부터, 해방 후 서구 독립영화의 영향, 1970~80년대와 사회 참여적 경향, 1990년대 개인의 대두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일별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김수남 교수의 학술적 성과가 양적으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영화사의 경우 그는 한국영화사뿐만 세계영화를 아우른다. 한국영화사의 경우에도 특정 시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조선영화사부터 시작해 현대영화사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다. 영화사의 접근 방식도 때로는 거시적이고 때로는 미시적이다. 그의 논문과 저서의 연구 주제가 충북영화로 한정되지 않지만 그가 이론 제도권 영화교육 분야에서의 성과는 한국영화사뿐만 아니라 충북영화사에서도 학술적으로 유의미하고 기념비적이다. 그런 점에 있어 그는 마땅히 충북의 영화인으로 불려야 한다.

충북 출신의 영화감독과 충북에서 활동한 영화평론가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충북 출신의 배우다. 그런데 충북 출신의 배우는 충북 출신의 영화감독이나 영화평론가와 다르게 그 수도 많고 연령대도 다양하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의 연령대는 1934년생 윤일봉으로부터 2009년생 김강훈에 이른다. 이미숙, 이범수, 유해진, 이진욱, 엄정화, 엄태웅, 정웅인, 박보영, 한효주, 유해진, 이시영 등이 잘 알려진 충북 출신의 배우들이다. 물론 이 명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충북 출신의 배우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짧은 글에서 충북 출신의 배우들을 모두 다 살펴볼 수 없고, 대신 전술한 명단에 들어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 영화와 드라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에 대해 살펴볼려 한다. 그는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배우 유순웅이다.

유순웅 연기의 시작은 연극이다.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도 그는 연극배우이자 연극연출가로 소개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충북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했고 1999년에는 충북연극제에서 연기상, 2004년에는 충북민예총 올해의 연기상을 수상했다. 그는 충북문화운동연합 사무국장,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 충북민예총 감사·조직국장·예술사업위원장·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예술공장 '두레' 상임연출가이자 극단 놀이때 열림터의 대표이기도 하다. 25년 이상 연극 무대에 섰기 때문에 대표작을 꼽는 것 자체가 결례가 될 수도 있지만, 연극인으로서 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바로 <엄쟁이 유氏>다. 1인극인 <엄쟁이 유氏>는 1000회 공연이라는 한국연극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엄쟁이 유氏>는 한국연극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유순웅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을 계기로 영화 <빛자루, 금붕어 되다>(김동주, 2010)에 출연하며 영화배우로서 더 많은 관객과 만나게 된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그는 짧은 기간 동안 장르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영화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연극을 통해 다져온 깊은 내공을 쏟아낸다. 그중에는 규모가 큰 영화도 있고 작은 영화도 있다. 대중적으로 흥행한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다. 하지만 그는 영화의 크기와 상관없이, 흥행과 상관없이 배우로서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2014년부터는 그는 영화뿐만 아니라 TV 드라마로까지 영역을 넓힌다.

포털 사이트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유순웅이 출연한 작품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초창기 영화의 경우에는 출연 분량이 적고 크레디트에도 거의 맨 뒤에 나온다. 심지어 나오지 않는 경

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다. 개인적으로는 <광해, 왕이 된 남자>(추창민, 2012), <마담 뵙덕>(임필성, 2014), <명량>(김한민, 2014), <남한산성>(황동혁, 2017) 등의 영화에서 그가 보여준 연기가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과 얼굴이 잘 매치되지 않았다. 특히 그의 이름은 귀에 설었다. 그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되기 시작한 것은 <이장>(정승오, 2020)과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종필, 2020)을 통해서였다. 유순웅은 <이장>에서는 가부장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큰아버지 관택, <삼진그룹 토익반>에서는 폐수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삼진전자의 편에 서서 합의를 끌어내는 마을 이장으로 나온다.



▲ 영화 <이장>의 한 장면. <이장>은 아버지 묘 이장을 위해 흩어져 지낸 오남매가 오랜만에 모여며 “세기 말적 가부장제와 작별을 고하는” 이야기다.

<이장>은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가부장적 사고를 네 자매의 시선으로 독특하게 풀어간다. 육아 휴직과 퇴사 권고를 동시에 받게 된 장녀 혜영과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셋째 금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딸, 언니, 그리고 누나다. 이 영화는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을 진솔하게 보여주며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내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영화 속 아버지의 묘 이장을 위해 모인 네 자매에게 “어떻게 장남도 없이 무덤을 파냐!”라고 소리치는 큰아버지 관택의 불호령은 가부장제의 모순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 큰아버지 관택 역을 맡은 배우가 바로 유순웅이다.

최근 들어 배우 유순웅의 진가가 드러나는 분야는 TV 드라마다. 넷째지 사냥에서 실수로 사람을 쏜 후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서는 한 남자의 사투를 그린 시골 미스터리 스릴러 <넷째지 사냥>(2022)에서 유순웅은 고지식하고 무뚝뚝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마을 이장으로 나온다. 그는 주인공 영수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중요한 인물이다. 실제로 드라마 타이틀에도 등장하고 크레디트에도 비교적 앞에 등장한다. <넷째지 사냥>은 시골을 배경으로 의심스러운 인물을 대거 배치하며 스릴러 장르에 충실한 전개를 이어 나가고 곳곳에 의심스러운 장치를 심어두고 회마다 반전을 선사하며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극한까지 몰리는 인물들의 감정을 충실히 재현하며 몰입감을 더했다”는 평은 결코 체언이 아니다. 박호산, 예수정, 김수진 등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유순웅을 비롯한 주변부 인물들의 밀도 깊은 연기가 인상적이다.



유순웅은 삶의 끝에 내몰린 위태로운 청년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며 아픔을 치유해가는 힐링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2022)에서 호스피스 병원 청소노동자 황차용으로 분한다. 극 중 황차용은 '팀 지니'의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말수는 적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마지막 소원 성취에 힘을 쏟는다.



▲ 드라마 <멧돼지 사냥>의 한 장면. 이 드라마는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이들이 아닌,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서늘한 자화상이다.

지금까지 유순웅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염전 주인, 상회 노인, 가게 주인, 관리인, 단속반, 형사, 경찰, 경비원, 옆집 할아버지, 마을 이장 등 다양한 역할을 했다. 마을 이장 역할은 여러 번 했고 노인 역할은 그보다 훨씬 많다. 크레디트에 노인으로 명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가 많은 역할은 노인, 그것도 비중이 크지 않은 노인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연기로 작은 역할도 크게 만든다. <멧돼지 사냥>과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에서 그가 맡은 마을 이장과 청소부는 직업적으로 예전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서사적으로 그는 주변부 인물이 아니라 중심인물이다.

유순웅은 지금까지 많은 영화에서 여러 역할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진짜 연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연기가 더욱 기대된다. 그를 보면서 유해진을 떠올리는 사람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둘은 외모보다도 배우로서의 행보가 비슷하다. 유해진이 배우로서 시작은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큰 것처럼 유순웅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한다.

'충북의 영화인'이라는 제목으로 제법 거창하게 글을 시작했지만 막상 글을 끝내려니 부끄럽고 민망하다. 사과와 변명, 그리고 바람으로 글을 마치려 한다. 부족한 능력과 게으른 성격 탓에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설명도 부실하고 그 근거는 더욱 부실하다. 틀렸을 수도 있고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그래도 변명을 하자면 이 글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즉 충북 영화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충북의 영화인'이라는 제목의 이 글 또한 계속 고쳐질 것이다. 거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이 글이 충북 영화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더한다.

## 07 충북학 연구소 소식

### 2022년 제1차 충북학포럼 개최

2022년 제1차 충북학포럼이 9월 16일(금) 오후 3시~6시까지 옥천 관성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정순철, 한국 동요의 초석을 놓다>를 주제로, 충북연구원·충북학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옥천문화원·정순철기념사업회·옥천군·충청북도가 함께 했다.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칭모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원장 직무대리)의 개회사와 황규철 옥천군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원래 기초강연을 하기로 했던 도종환 국회의원(『정순철 평전』의 저자)이 사정상 참석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포럼 제1부에서는 먼저, 임기현 충북학연구소장이 <자료발굴을 통해 본 정순철의 생애와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임기현 소장은 동요 12곡, 악보, 가사, 음원, 기고문, 사진 등 새로 자료들을 발굴하여 기존의 오류를 바로 잡고 빈 자리를 메웠다. 그의 연구는 정순철 생애와 작품의 연보를 좀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정순철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 1939년 중등고 졸업앨범의 정순철

다음으로 류미해 청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정순철 작품 연구-음악적 요소에 기반한 작품 고찰>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류미해 교수는 발표에서 정순철은 우리나라 창작동요의 시작점에 있었고, 그의 곡은 가사의 정서를 최대한 가사의 정서를 담아내려고 하였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가곡 또한 우리 근대 음악사에서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번 포럼에서는 특별히 짹짹어린이합창단과 바리톤 최신민, 소프라노 이은선이 출연하여 새로 발굴된 동요와 가곡을 시연하였다.

제2부에서는 김승환 충북문화재단 대표가 좌장을 맡아 발제자 2명과 장정희 방정환연구소장, 조원경 동요작곡가, 이규선 정순철기념사업회장, 장재원 옥천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연정 충북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발제문에 대한 질의응답 외에 정순철 동요의 특성, 정순철 기념사업의 방향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충북학포럼은 충북학연구소가 시·군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정순철 동요 시연  
(짹짹 어린이합창단)



▲ 정순철 가곡 시연  
(바리톤 최신민, 소프라노 이은선)



▲ 제2부 종합토론

# 2022년 “충북학 제24집 원고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는 매년 ‘충북학’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발간 『충북학』 제24집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고를 투고해 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모집 정보** 모집분야 | 충북관련 연구논문 및 비논문 원고 모집      **모집 대상** 연구자,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분야	편량
연구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연구논단(논문과 저널의 중간수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저널(문화초점, 인물탐구, 자료소개, 서평 등)	

**모집 일정** 원고마감: 2022년 10월 30일  
게재심사: 2022년 11월 15일  
결과통보: 2022년 11월 16일  
발간시기: 2022년 12월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cbc9236@cri.re.kr  
문의 | 043) 220-1161~2

- ※ 자세한 사항은 충북학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2

홈페이지 <http://csi.cri.re.kr>